

민들레에서 만난 사람

“철수야 놀자”

충북 제천군 백운면 평동마을. 천등산이 마주 보이고 박달재와 다랫재 사이, 산이 사방을 에워싼 작은 마을. 1980년대 민중환화가로 세상에 알려진 뒤 20여 년을 꾸준히 ‘환쟁이’로서 세상과 소통해온 이철수 님을 찾았다.

서울에서 태어나고 자란 그이가 1987년 이곳 박달재로 거처를 옮기고 벌써 15년이 흘렀다. 그이는 이제 농사꾼이 다 되었다. 바깥거리는 봄가뭄에 여느 농사꾼 마냥 입이 마른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늘을 올려다보며 할 일을 그리는 것이나, 잔걸음으로 논두렁을 한 바퀴 돌고 오는 것도 벌써 십 년 넘은 일상이다. 가족들의 먹을거리는 거의 자급자족하고 있다. 가까운 사람들끼리 조금씩 나눠 먹고…. 수박이나 딸기, 토마토랑 오이 같은 것도 심어 먹기 때문에 농사 가짓수가 늘 스무 가지가 넘는다. 농사는 아내가 더 많은 품을 들이고 있단다. 얼핏 보면 힘쓰는 일이 많을 것 같지만 실제로 밭 매고 하는 데는 여자들이 훨씬 능숙하다. 근데 맨날 그이가 농사도 도맡아서 하는 것처럼 소개가 된다면 농사일에서까지 남편의 그늘에 가려져 있는 아내에게 짐짓 미안함을 드러내 보인다.



초록, 1998

농사에 대한 그의 자부심은 2000년에 낸 『이렇게 좋은 날』이라는 작품도록집에서도 엿볼 수 있다.

“그림 그리는 일만 하고 살면 ‘전업화가’라고 부릅니다. 전 그새 전업 아닌 ‘겸업화가’로 지낸 셈입니다. 아내와 함께 지은 농사와 틈틈이 새기는 목판화 작업이 모두 소중한 우리 ‘일’이었습니다. 행복한 겸업이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언제 한번 들르시면 저희 내외가 짓는 농사자랑을 하고 싶습니다. 그림으로는 어려운 일이지만 농사는 내놓고 자랑도 할 수 있습니다. 천지가 하시는 일을 사람이 들어서 거드는 일이 농사라면 그림은 알량한 마음을 내서 큰 세상을 설득하자는 일이라 어리석음이 잘 드러나는 때문인 듯도 싶습니다.”

그래도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그이를 ‘농부’라는 악세사리를 걸친 ‘관화가’로만 보려 한다. 하긴 그이한테는 농사가 주 수입원은 아니니 어쩌면 당연한 눈길인지도 모르지만 때로는 섭섭하기도 한 듯하다.

이 철수가 그 철수냐

그이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담배를 피웠다. 그래도 담배를 피운다 해서 문제아라는 딱지가 붙어 시달림을 받지는 않았단다. 미션스쿨이라서 담배 피우다 걸리면 무기정학이었지만 교련선생님이 잘 봐주셨다. 하루에 두 대만 피우라고 하시면서 보일러실로 데려가기도 했단다. 학교 다닐 때는 공부를 잘 하는 학생이 아니었다. 하지만 국어나 고전문학 같은 것은 공부를 별로 안 해도 성적이 좋았다. 고전문학은 시험보고 나면 모범답안 삼는다고 선생님이 가져가시곤 했을 정도였다. 수학이나 과학 쪽은 영 흥미가 없었고 공부도 안 했다. 같이 수업을 빼먹은 한 친구가 수학시간에 “야, 엘로지 log 엘아이엠 lim이 뭐냐?” 하길래 “야 임마, 그것도 모르냐? 로그, 라임이잖아.” 그러면서 아는 척 설명을 했단다. 근데 그 친구가 옆자리 다른 친구한테 라임이 맞냐고 또 물어보는 바람에 주위에서 다들 킁킁거리다 선생님한테 걸려 앞으로 불러 나갔다. 출석부로 머리를 몇 대 맞고서는 이실직고를 했더니 선생님도 기가 찬지 웃고 말았다. 4년 뒤 동생이 마침 같은 학교를 다녔는데, 그 선생님이 수업시간에 얘기 하더라. 너네 선배들 중에 이걸 ‘라임’이라 읽는 골통이 있었다고. 이미 그 이야기는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회자되었던 모양이다. 입학 후 동생의 가정환경 조사서를 보던 담임이 그랬단다. “이 철수가 그 철수냐?”

어떤 선생님들은 그이를 아주 미워하고 어떤 선생님들은 좋아하고 그랬다. 수학시험을 볼 때 앞에 나오는 쉬운 문제 몇 개 풀고 나면 할 일이 없어 가만히 앉아 있곤 했는데, 어떤 선생님이 수학 잘 하는 친구 답안지를 가져와서는 보고 쓰라고 들고 있다가 몇 개 베껴 쓰고 나면 “그만 하면 낙제는 안 하니 나가라.” 하기도 했다. 수학시간에는 수업을 방해하지

않도록 아예 미술실에 가 있으라는 선생님도 있었다. 국어시간에 만화를 보고 있는데 뒤에서 다가온 선생님이 “야, 이철수도 만화 보냐?” 그러고는 그냥 가시기도 했다. 책보는 걸 아주 좋아해서 난독에 가깝게 온갖 책들을 읽고 있던 그이를 선생님은 그냥 지켜보아 주었다. 책 읽고 글 쓰고 그림 그리는 것을 즐겨서 교지 편집 일을 맡기도 했다.

그 당시 집안 형편은 많이 어려웠다.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면서 수업료도 제대로 내기 힘들었다. 수업료가 밀리면 수업시간에도 서무실로 불려가곤 했는데 한번은 그랬단다. “왜 자꾸 수업시간에 불려내요? 수업료 깎아줄 거예요?” 그래서 미운털이 박히기도 했지만 어머니한테는 전혀 얘기를 안 했다. 방학이면 거의 나가 살다시피 했다. 삼양동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구두도 닦고, 슬리퍼 짝짝 끌고 돌아다니다 저녁때면 들어가곤 했는데 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안 하셨다. 그렇게 조용히 지켜봐 주시지만 한 것이 사실은 그이를 지켜주는 힘이 되었다고 한다.

철수를 키운 선생님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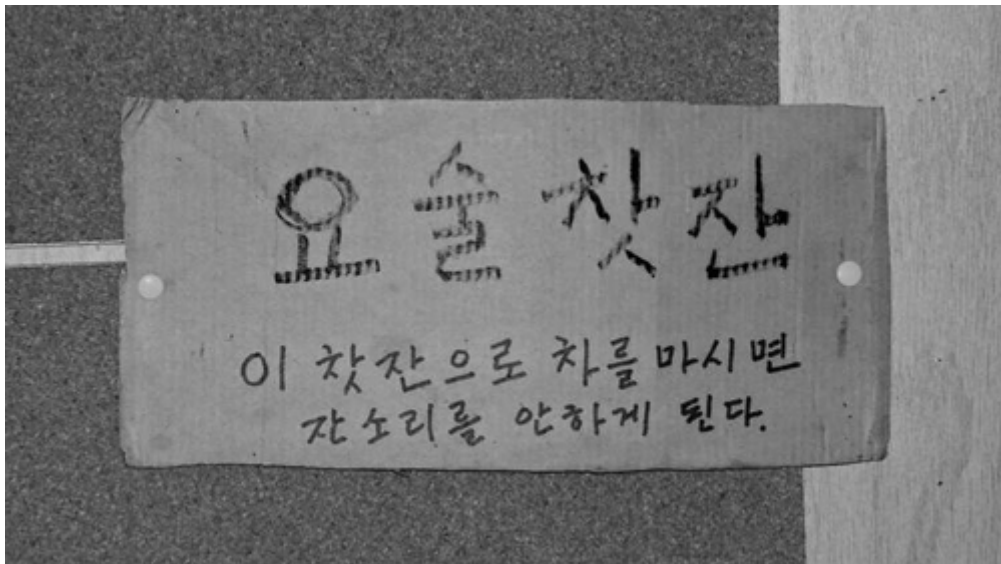
그이는 대학을 다니지 않았다. 집안이 어려웠던 탓도 있었지만 딱히 대학을 가야겠다는 생각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이에게는 대학과는 견줄 수도 없는, 삶을 가르쳐 준 스승 같은 분들이 있다. 20대에 만나 삶의 지표가 되어준 분들. 그 분들이 없었다면 오늘의 이철수가 없을지도 모른다. 누구보다 가깝게 인연을 맺은 분은 이아무개로도 알려진 이현주 목사님이다. 열 살이 위인 목사님을 ‘형님’이라 부르는데 마음속으로는 선생님이로 모신다고 한다. 목사님한테서는 정신적인 도움 못지 않게 돈도 적지 않게 얻어 썼다. 이십대 무명화가 시절 자취방에 들러서는 봉투 하나 슬그머니 놓고 가시곤 했다는데, 강연료나 원고료로 받은 돈봉투에서 차비만 빼고 주시곤 했다. 자꾸 받기만 하는 것이 미안해 거절하자 “잘 받는 사람이 주기도 잘 한다.”며 나중에 누구한테든 갚아주라고 그러셨다.

제천에 자리를 잡게 된 것도 목사님 때문이다. 문화 불모지인 지방에 자리잡을 생각을 하고서 강원도 쪽을 알아보고 있었는데 박달재 너머에 목사님이 살고 계셔서 그 인연으로 이곳에 자리를 잡게 되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봐주신 것도 당신이다. 당신은 그 뒤로 전국을 떠돌다시피 옮겨다니고 계시지만 몸이 멀다고 마음이 멀어지는 것은 아닌 듯하다.

무위당 장일순 선생님, 권정생 선생님을 만난 것도 ‘형님’을 통해서였다. 철수를 본 장일순 선생님은 “자네 재주가 나보다 낫네. 옆드려 살게.” 하시면서 난을 한 폭 쳐주셨다. 일이 아주 조그맣고 꽃이 커다란 난이었다. 미학을 공부하신 분이래 그림 공부에도 많은 도움을 주셨지만 삶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가르쳐주신 분이 무위당 선생이다. 동네 군고구마 장수와도 반갑게 인사를 나누시던 선생님의 모습에서 지역을 지키며 사는 의미를 깨닫게 되었다고 한다.

권정생 선생님도 마음 속 깊이 모시고 있는 선생님 가운데 한 분이다. 지금 부인이 된 사람과 연애했던 시절 같이 안동으로 선생님을 뵈러 갔을 때의 일이라고 한다. 떠나올 때 마을 앞까지 배웅을 나와 버스를 기다리면서 보리밭을 물끄러미 바라보시던 선생님이 중얼거리셨다. “날이 이렇게 가무니 재들도 얼마나 목이 탈까…” 눈물이 글썽한 눈으로 보리밭을 바라보는 선생님을 보면서 마음 깊은 곳에서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결혼 후에 권 선생님이 찻잔 두 개를 보내주셨는데 상자 곁에 커다란 매직 글씨로 이렇게 써 놓으셨다. ‘요술찻잔, 이 찻잔으로 차를 마시면 잔소리를 안 하게 된다’. 그 글씨가 쓰인 골판지 박스 뚜껑은 액자처럼 작업실 한쪽 벽에 아직도 걸려 있다. 아마도 찻잔보다 그 골판지 뚜껑이 요술뚜껑일 것 같다. ‘이 뚜껑을 바라보면 머리뚜껑이 안 열립니다’ 잔소리를 안 하는 부모가 된 것도 그 덕분일까?



이곳이 대안교육 현장이에요

지금 박달재 집에는 부인과 올해 고2가 된 딸 가현이가 함께 살고 있다. 아들 장환이는 올해 대학에 들어가서 서울에 있다. 아이들 방에는 만화책이 수백 권 쌓여 있는데 거의가 아빠가 사준 것들이다. 이들 부부는 아이들한테 공부하라는 말을 하지 않는다. 어떻게든 다 제 몫을 하면서 살 거라는 믿음 때문이란다. 당신의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장환이가 제천고에 처음 입학했을 때 아이들을 열등반, 우등반으로 나누더란다. 부인은 전체 부모모임 자리에서 항의를 했다. 왜 아이들을 시작부터 열등감에 시달리게 하느냐, 아이들에게 모든 기회를 열어줘야 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학부모들이 난리가 났다. 제천 시내에서 제고의 위상이 그게 아니라는 등, 당신 아들도 나중에 잘 해서 우등반에 들어가면 될 거 아니냐는 등. 기가 막혀 다시는 학교에 발걸음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아이는 그냥 학교에 다니도록 했다. 또래 아이들이 경험할 수 있는 보편적인 문화에서 사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

었기 때문이다.



손수 만든 문패

가현이도 요즘 학교 공부가 싫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성적이 썩 좋지 않다. 성적 때문에 기가 죽는 법은 없지만 한동안은 학교에 다니기 싫다는 말도 하곤 했다. 학교를 그만 두고 검정고시를 보고 싶다고도 했고 그래서 대안학교를 알아보기도 했지만 친구들 때문에 그냥 학교에 다니고 있다. 장환이 때와 마찬가지로 생각이다. 대안학교라는 ‘틀’을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그보다 그이를 구원해줬던 몇 분 선생님들 같은 ‘사람’을 더 신뢰한다. 오히려 좋은 선생님들이 일반학교에 좀 남아있어야 할 텐데, 좋은 선생님들은 학교를 그만두기도 잘 해서 걱정이란다.

요즘은 개성, 나, 자아 이런 개념들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지만, ‘나’란 것도 사회 속에 속한 인자로서의 ‘나’인 것이지 ‘오직’ 나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지나치게 ‘나’만을 강조하다 보니 특별한 존재인 것만을 강조하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름 없는 들꽃이나 잡초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는 해주지 않는다. 세상에 드러나지 않는 평범한 인물로 사는 것의 의미나 가치에 대해서도 얘기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현이에게도 그렇게 말한단다. 평범한 것들을 많이 보라고. 평범한 민주시민이 많아야 좋은 세상이라고 믿기에 장환이나 가현이가 평범한 민주시민이 되면 성공한 거라 생각한다.

사람들이 시골에 오고 싶지만 아이 공부 때문에 엄두를 못 낸다고 하면 솔직히 할 말이 없단다. 아이들을 중학교까지 면소재지 학교에 보냈었는데 교육환경이 열악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서울 강남과 제천 시골을 비교하면 일등과 꼴지 정도가 되지 않을까. 선생님들도 순회교사다. 학년당 한 학급씩밖에 없는데 교사 수는 학급 수에 따라 배정되니 국영수 교사 한 명씩을 제외하면 나머지 교사들은 모두 순회교사를 쓸 수밖에 없다. 순회교사들은 소속감도 없고 아이들도 자기 학교 선생님이로 생각 안 한다. 하지만 좋은 점도 있다. 작은 학교라서 가능한 일들도 많다. 장환이네 반에 구구단을 못 외우는 친구가 있었는데 선생님이 매일 그 아이에게 신경을 써주었고 결국엔 거꾸로도 완벽하게 외울 수 있게 되었단다. 그러자 아이들은 모두 합성을 지르며 좋아했다. 그리고 가현이 친구 중 한 명은 장애아였다. 할머니랑 둘이 살았는데 머리도 잘 안 감고 다녀서 아이들이 함께 그 친구를 도와 머리도 감겨주고 아침에 데리러 가고 데려다 주고 하면서 9년을 지냈다. 이런 경험은 아무 데서나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열악하기는 해도 이런 게 요새 말하는 대안교육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한다.

철수와 여경

이철수와 이여경. 두 사람이 만난 것은 서울 월곡동에서 빈민운동을 하던 허병섭 목사님이 계신 동월교회에서였다. 철수는 벽화작업을 하러 와 있었고 그 무렵 야학 일을 하던 여경은 자원활동을 하러 와 있었다. ‘철수와 순이’가 아니라 ‘철수와 여경이’는 어쩐지 어울리지 않는 듯도 하다. 시인 광재구는 그의 얼굴을 두고 ‘일용인가 하는 텔런트 얼굴에 노무현, 정태춘 얼굴을 한 데 버무린 듯하다’고 표현했는데,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가진 것도 없는 그이와 선뜻 결혼을 결심한 것은 ‘인연’이었기 때문일까.

결혼할 때 그이는 이제 아주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단다. 실제로 그랬다. 그래서 그이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결혼을 하라고 한다. 결혼은 참 좋은 거라고. 그건 부인도 같은 생각이다. 물론 거저 좋아지는 건 아니고 서로 애를 많이 써야 한다. 안 맞는 이를 맞추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고 노력도 많이 필요했지만, 결혼이 큰 평화 속으로 몰아다 뒀고 스스로를 지키고 가꾸는 다리가 되어 주었다.

그래서 가정을 인류가 만들어낸 것 중에 가장 매력적이고 성공적인 틀이라고도 생각한다. 거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전제를 달고. 가족제도를 억압적인 구조로 인식하는 데 절대 찬성할 수 없단다. 오히려 그이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특이해진 것에 아주 안타까움을 많이 느낀다. 서로가 자신을 하나도 버리려고 하지 않으면 얻어질 수 없겠지만 그럴 뜻이 있고 가정을 통해서 화학변화를 경험하는 걸 기꺼이 받아들이겠다고 한다면 한 바퀴로 굴러가는 것보다는 두 바퀴로 굴러가는 게 안정감 있다고 생각한다.

부인이 좀더 자기를 많이 비워줬다고 한다. 그이가 늘 아주 많은 것을 요구하는 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미안스러워 한다. 뭘 줬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고 얻은 것만 무지 많다

. 농사만 해도 부인이 훨씬 많은 일을 챙기고 있고 그 덕분에 이 정도로 생활이 유지된다고. 부인은 젊었을 때 다니던 학교까지 그만두고서 서울의 한 달동네에서 야학 활동을 했었는데, 결혼을 하면서 모든 것을 접었다. 그이를 많이 좋아해서 그런 거라며 얼굴이 빨개지도록 웃는다. 하하하... 하지만 처음 몇 년 동안은 서로가 아주 고민이 많았다. 부인이 바깥 활동을 할 수 있게 배려할 수도 있을 텐데 그걸 받아들이지 못했다. 하지만 농사라는 공동의 일이 있었고 그이가 하는 일을 돕기도 하면서 그이의 일은 공동의 일이 되었다. 그러면서 문제는 서서히 해결이 되었다. 나이가 들수록

같이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이 생길 것 같아 이제는 그런 염려를 하지 않는다.

그림은 점점 작업을 줄여나갈 거고 좀더 다른 형태의 부부관계로 진화해 가리라 기대하고 있다.

부인의 말이다.

“어차피 선택이에요. 가정주부도 사회의 여러 일 중에 하나고 난 그것을 선택한 것뿐이에요. 자신과 배우자 모두를 객관화해서 볼 수 있어야 해요. 내가 결혼해서 손해보는 것이 있듯이 상대방도 그래요. 도움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구요. 남편이 저에게 삼 년 동안만 자기 일을 도와달라고 했어요. 같이 살기로 한 사람의 삶에 중요한 삼 년이라면 그것이 내게도 의미가 있을 거라 생각했고 그래서 선택했어요. 그건 이철수를 위한 일이기도 했지만 곧 나를 위한 일이기도 하니까요. 물론 나란 존재가 세상에 드러나진 않지만 존재라는 건 그 자리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빛이 날 수 있어요.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감춰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름 석자를 세상에 드러내지 못한다고 불안해 할 필요는 없죠. 내가 한 선택 안에서 나를 다듬고 높여갈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지 이철수란 인물 때문에 나란 존재가 사라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민중판화에서 선화 禪畵의 세계로

학창시절부터 글쓰기, 책읽기,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다. 중3 때 신춘문예에 작품을 냈는데 안 됐다. 그 뒤로도 계속... 글을 쓸까 그림을 그릴까 고민을 하다가 군대를 가게 되었는데 그 무렵이 민족문학이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할 때였다. 그런데 문학에 비해 미술은 왜 이렇게 세상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적을까 싶었다. 그래서 군대를 체대할 무렵 열심히 다짐을 했다. 밖에 나가서 아무도 안 하면 나라도 해야겠다고. 나와보니 정말 아무도 안 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리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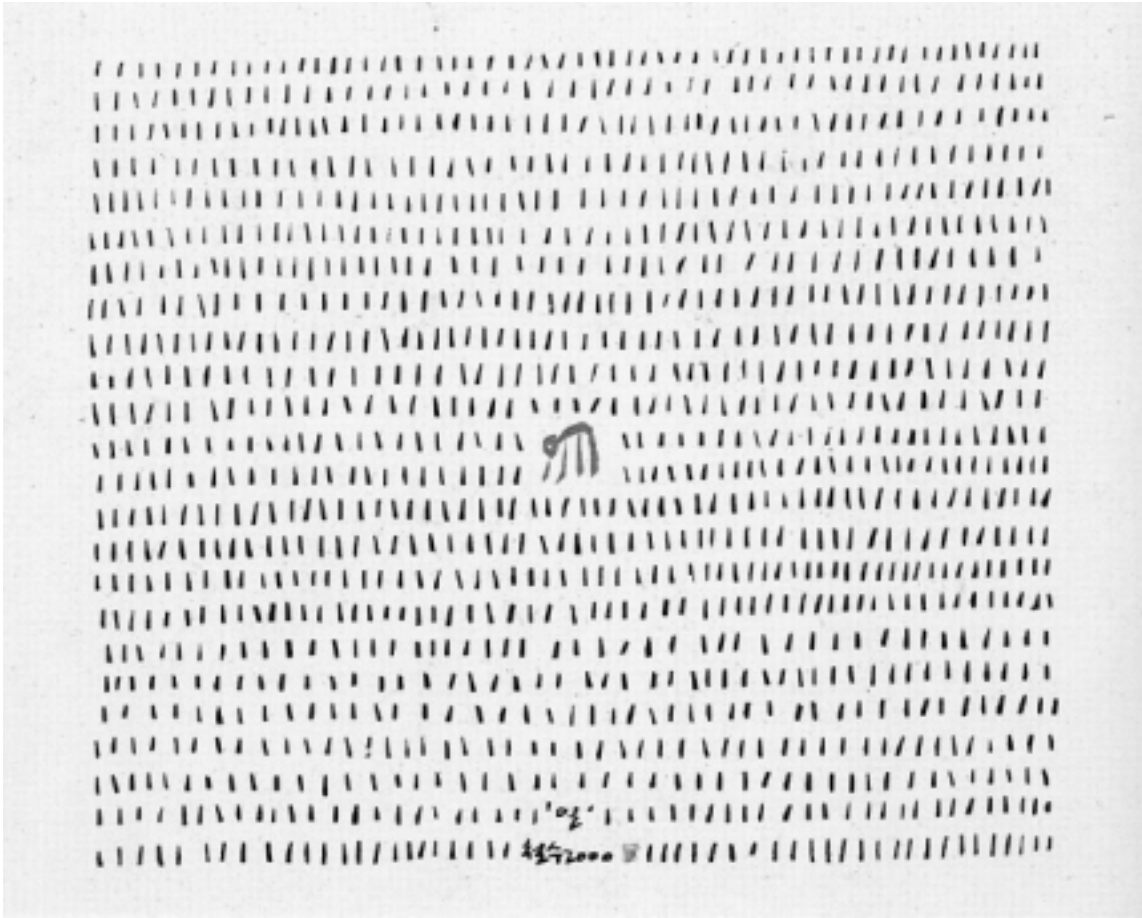
그 무렵에 그이가 그린 그림은 정말 분노로 짝 찬 그림이었다. 울산의 현대 노동자들이 골리앗 크레인 위에서 투쟁을 할 때 크레인의 거대한 걸개그림도 바로 그런 그림이었다. 그 뒤로 1980년대 말까지 계속 그런 그림을 그렸다.



콜리웃 투쟁 때 걸렸던 ‘거리에서’, 1988

그런데 80년대 말부터 서서히 그림이 달라졌다. 현실의 여러 가지 모순들에 곧장 반응하는 차원에서 스스로를 돌아보는 쪽으로 바뀌기 시작한 것이다. 왜 그랬는지는 잘 모른다. 자연스럽게 흘러가다 어느 날 뒤돌아보니 그림이 달라져 있었다고 한다. 지금 돌이켜보면 초기 그림이 진실하지 못했던 것 같다는 생각도 든다. 저항이라고 표현되는 그런 형태의 미술이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도 많이 했다. 진실성도 모자라고 때론 감정이 지나치게 과장되어 있어서 정직하지도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그 안에서 병들었던 감정이 현실에 대한 분노를 과장하도록 만든 것 같다고. 살면서 받은 상처들 때문에 생겨난 분노나 좌절감을 정도 이상으로 쏟아냈던 셈이다. 그 때문에 스스로도 불편해하고 있었던 것 같다.

세 달 가까이 유럽에 나가 있던 시간들이 변화의 방향을 좀더 분명하게 해주었다. 케테 콜비츠와 같은 사회참여 예술가가 독일 사회에서 이미 잊혀져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예술이 시대적인 상황 아래서 그 소임을 다하고 나면 그렇게 빠르게 잊혀지고 영원히 존재할 수 없는 것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 발라하라는 독일 조각가의 작품을 보았는데 신앙적인 내용이 많이 담겨 있으면서 현실문제에도 등을 돌리고 있지 않았다.



일, 2000

예술적인 생기와 함께 심오함도 들어 있으면서 시대를 뛰어넘는 완성감이 돋보이는 작품이었다. 그런 발라하의 작품에서 큰 감동을 받았다.

그 때 독일 전시회를 주선한 준비위원 가운데 한 분이 그이 그림에 전체주의적인 요소가 있다고 이야기한 것도 작품의 변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그 자리에선 아니라고 부정했지만, 돌아와선 오랜 시간을 두고 고민했다고 한다. 한 일 년 가까이 작업도 못했다. 그렇게 지내다가 다시 맘을 추스리고 작업에 몰입할 수 있게 됐는데, 그러면서 냈던 책이 □새도 무게가 있습니다□이다. 불교 색채의 작품을 모아서 만든 것인데 그 때까지도 저항적인 작품들이 섞여 있었다. 그러다가 90년대 중반 들어서 점점 요즘에 보여주는 그림으로 정착해 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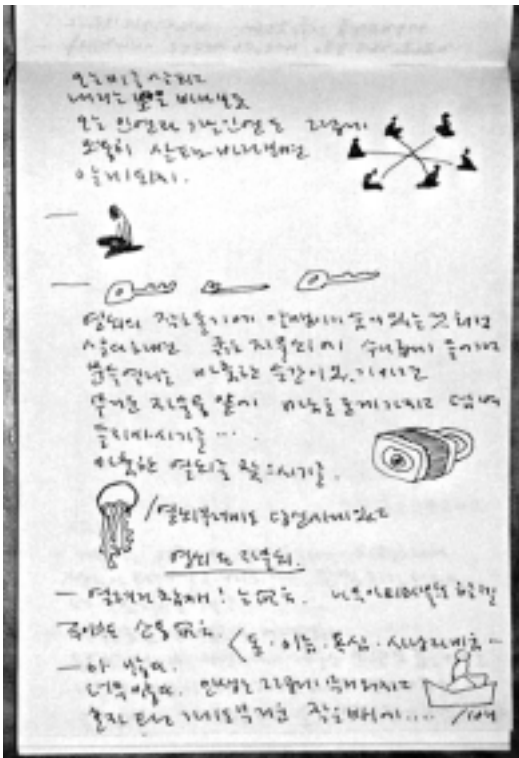
그림 세계를 바꾸니까 사회운동에 등을 돌리고 현실사회 문제를 외면할 거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이는 시민사회운동과 관계를 끊은 적은 한 번도 없다고 한다. 다만 예전에는 노동자나 농민들을 위한 작품을 그리는 일에 좀더 적극적이었다면 요즘엔 좀더 근본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계층인 장애인들에게 관심이 많고 그들과 관계 있는 시설과 관련을 맺고 있다. 환경운동에 꾸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현대인들에게 가장 집중적으로 고민되

어야 할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 동안 인간중심적인 사고들이 칭찬 받을 만한 가치였고 사고방식이었다면 이제는 탈인간 중심적인, 좀더 큰 질서 안에서 한 부문으로서의 인간, 이런 것에 관한 이야기가 문화예술적인 차원에서도 이야기되어야 할 필요성이 생긴 듯하고, 그런 점에서 예술에 몸담은 이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환경문제는 단순하게 환경문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대한 이야기로도 파고들어야 한다고. 내면의 황폐가 세상의 황폐와 연결돼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존재의 내면을 깊이 살피는 게 환경을 해치는 나쁜 버릇을 고치는 근본적 해결책이라는 생각이다.

이 모든 걸 논리적으로 말하는 건 손쉬운 일인데 그 삶을 받아들이기까지는 좀 더 긴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사람들에게 감성적으로 다가가는 미술 같은 매체가 무언가 제 역할을 해야 할 거라고 한다. 존재를 바꾸는 데, 때론 책 한 권보다 그림 하나가 더 강렬한 메시지를 전해줄 수 있으니까. 지금의 그림 세계를 선택한 제일 큰 논리적 이유가 그것이다. 개인 차원의 실험이 훨씬 손쉬운 거니까 우선 나부터 그러고 싶다는 거고, 그래서 내가 살아가면서 내 삶의 틈새에서 찾아내는 이런 사소한 메시지들을 나눠보자는 거고, 거기서 시사를 얻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삶을 그렇게 간결하게 할 수 있으면 뭔가 변화가 있으리라는 기대 때문에 지금과 같은 작품활동을 한다.

미술은 다른 게 아니예요, 자기표현이지



메모장

“ 그냥 내 속에 흘러가는 생각을 그때그때 메모해 봤다가 그림을 그리는데... 어딜 갈 때는 늘 조그만 메모장을 들고 다녀요. 얼마 전엔 강릉을 가는 길에 전광판을 봤는데 거기 ‘길에 휴지를 버리지 맙시다’ 는 글이 뜨더라고.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길에 인생을 버리지 맙시다’ 라는. 길이 너무 좋아져서 길바닥에 까는 인생도 많아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 언제 한번 점점이 된 전광판 글씨를 본떠서 그림을 하나 그려봐야지 생각했어요. 그렇게 해서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리고 있는 그림은 사오 년 전에 해놓은 메모를 보면서 그리고 있어요. 요즘 메모하는 것들은 또 한 사오 년 뒤에나 그림이 될 거예요.

이제는 흘러가는 걸 붙잡지 말고 그냥 버리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림 그리는 일을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거지. 주어 담는 게 구차스러워서 그만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림을 자기표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자기표현조차도 없을 때 제일 좋은 그림이 되는 거 같아요. 거기까지 가보고 싶었는데 아직은 흘러가는 것을 자꾸 건져 올리고 있지.”

어느 날 한 가족이 놀러 왔었다. 장사를 하는 아버지가 어디선가 그이의 그림을 보고는 이것저것 그리기 좋아하는 아들을 위해 가족을 트럭에 태우고 박달재를 넘어온 것이다. 한참을 그림 얘기도 하고 구경도 하고는 돌아갔는데, 그 어린 아이가 카드를 보내왔다. 이철수 관화를 흉내낸 그림 한 컷 아래 뽀뽀한 글씨가 적혀 있었다. ‘얕던 내 손톱이 밴드 사이로 쏙 빠졌다’ 그이가 그리는 그림도 바로 이 아이가 그린 그림처럼 조금도 힘쓸 필요가 없는 그런 그림이다. 이렇게 자기표현을 할 수 있으면 되는 건데... 여태까지 자기 그림에 대한 여러 가지 평들을 보았지만 이때처럼 반가웠던 적도 없었다고 한다. 그이는 사람들과의 소통을 위해 좀더 사람들 가까이 다가서는 길을 찾았다.

“저는 그림을 들고 남의 거실로 안방으로 책상으로 걸어 들어가고 싶었던 거지요. 미술이 다가가야 한다는 처음 생각이 옳았던 듯합니다. 분주하게 사는 평범한 사람들에게 미술은 여전히 낯선 세계입니다. 그들을 시시한 텔레비전 프로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어리석은 부류로 취급하는 건 바보 같은 생각입니다. 알 수 없는 난해와 믿기지 않는 권위로 버무린 현대미술 대부분은 체계도 벽입니다. 감미로운 것이 많아진 세상과 견주지 않더라도 미술은 참 매력 없는 물건이 되어버렸습니다. 달라져야 합니다. 때로는 대화를 거부하는 듯한 미술도 있습니다. 그건 ‘외국어’라는 느낌입니다. ‘사투리 아닌 외국어!’ 그쯤 되면 다가가고 말고 할 것도 없겠지요. ‘단절’이 곧 ‘현대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이는 그렇게 달력으로 또 작은 생활소품으로 사람들의 일상 속으로 들어갔다. 그렇게 그 속에 있으면서 삶을 다시 돌아보게 해주는 작은 계기라도 되었으면 하는 뜻에서였다. 그이는 지금 하는 일을 장사라 표현해도 좋다고 한다. 고급스러운 척하는 장사. 그래서 더더욱 내공을 쌓아야 한다고 말한다. 그렇지 않으면 쉽게 망가지기 때문이다. 그이가 자주 ‘내면’ 얘기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자신의 존재를 늘 잊지 말고 지켜보기. 세상이 시키는 대로만 살면 망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세상을 외면하지 말아야지...

가끔 그이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다. 제일 신랄한 비판을 아끼지 않는 이가 바로 아내다. 조금 느슨해질라치면 ‘세상을 온전하고 반듯하게 살아가려는 사람이 할 일이 아니지 않나’면서, 그게 정말 욕심 때문이었다고 판단하면 그만 두기도 한다. 드물지만 바깥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듣는다. 잘 기억은 안 나지만 돈을 많이 벌었다든가 하는 헛소문 같은 게 돌아서

그이를 불편하게 한 적이 있었다. 가끔 가슴이 아플 때도 있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니까 별로 개의치 않는다고 한다. 우리 사회에서는 손을 돌려서는 돈을 많이 못 번다는 게 그의 말이다. 물론 아무 것도 없이 제천에 왔는데 이만큼 살게 되었고 그게 번 거라면 번 거기도 하지 그러며 웃는다.

최근에 집을 고쳤다. 지붕은 여전히 시멘트 기와가 얹혀 있는 팔각지붕인데 집안은 전통 한옥풍으로 바꾸었다. 그런데 집을 고치고 나서 한동안 집에 들어가는 게 부담스러웠다고 한다. 집이 너무 좋아져서 웬지 많은 사람들에게 미안했고 이 집을 드나드는 사람들 중에 위화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으면 어쩌나 걱정도 들었던단다. 들어가 살아도 되나 생각을 많이 했는데 사람이 감사해서 그런지 그런 거 금방 잊어먹더라며 멋쩍은 듯 웃는다. 그러면서도 그는 자신의 그림 속의 말들을 빗처럼 붙들고 산다.

“그림 속의 다양한 말들이 모두 제 살아온 흔적입니다. 때로 과분하게 아름다운 이야기도 있고 깊고 높은 이야기를 엿보기도 합니다. 때로 제 키를 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잠시 스치는 생각이 깊어 보인대서 제가 깊어질리 없고 드러낸 말이 아름답다 해서 제 삶이 온통 아름다워질 리도 만무합니다. 결론은 속 다르고 겉 다른 ‘거짓말’이 되고 맙니다. 그림을 하되 ‘쉬운 그림’ ‘쉬운 말’이 되자 한 것이 ‘손쉬운 거짓말’이 되고 마는 셈입니다. 제 삶도 제 그림도 모두 한통속의 거짓말로 전략하는 것이지요. 결국 처녀를 데리고 사단이 났으니 장가들어야 하는 총각 신세가 되었습니다. 제 삶을 아름답게 가꾸고 마음을 온전히 가다듬어서 진작에 해놓은 아름답고 순정한 그림 속 이야기에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림이 시킨 대로 살겠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림도 제 인생도 다 같이 온전해지는 길이라니 그 아니 다행입니까? 그렇게 해야지요.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성내고 다투지 말아야지.

힘 앞에 고개 숙이지 말아야지.

가난하게 살아야지.

세상을 외면하지 말아야지.”

(2000년 11월 작품도록집 『이렇게 좋은 날』 가운데)